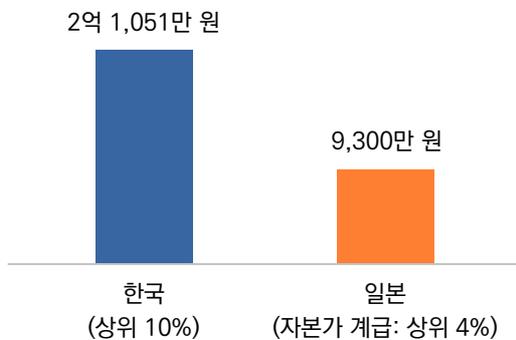




[한일 국민 소득 비교] 한국, 일본보다 소득 양극화 더 심하다!

- 일본 와세다대 하시모토 겐지 교수가 최근 발표한 「새로운 계급 사회」에 따르면, 일본의 사회 계급은 5개로 구분되며, 이 가운데 최상위는 '자본가 계급'(기업 경영자나 이사진), 최하위는 '언더클래스'(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자·무직자)로 정의된다.
- 이를 한국의 상·하위 10% 소득 계층과 비교해 보면, 2023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%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,051만 원으로, 일본 자본가 계급(상위 4%)의 연평균 소득 9,300만 원보다 훨씬 높다.
- 반대로 한국의 하위 10%의 연소득은 1,019만 원으로, 일본 언더클래스(하위 14%)의 소득(2,000만 원)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.
- 종합하면 한국은 상위 계층의 소득이 일본보다 훨씬 높고, 하위 계층의 소득은 일본보다 더 적어, 상·하위 10% 간 소득 격차가 약 20배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한일 최상위계층 소득 비교



[그림] 한일 최하위계층 소득 비교



※출처: 주간동아, 일본 자본가의 '일 만족도' 36%로 가장 낮아, 2025.08.23. (<https://weekly.donga.com/economy/article/all/11/5801632/1>)